



온풍기 사용과 관리요령

출하후 청소는 잔고장을 방지하는 필수조건

1. 축산의 달인이 되는 길

누가 우리를 선진 축산인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농경 사회는 근면과 성실이 능력이었고, 산업 사회는 학력과 경력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은 창의성과 속도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정보지식을 가공 유통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수준이 낮았으나 오늘날은 다르다. 누가 먼저 정보기술을 가공·활용하고 창조하느냐의 경쟁이다. 자기 직업을 끊임없이 연구개선 개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전문분야를 대충 아는 것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푹 부러지게 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가 FTA를 이겨 내고 앞서가는 축산인의 자세라 생각한다.

나 자신도 15여년을 하루같이 내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전념하다 보니 우수한 온풍기 제조의 달인이 되기도 하고 생산에서



이 영 수

KBC시스템 대표

A/S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창조력이 더욱 향상된 제품을 개발하게 되어 수입에 의존하던 간접 온풍기를 국내에서 생산 시판하는 결과까지 보게 되었다.

먼저 가격면에서 270만원대의 금액을 1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낮추면서 특허(제 10-0729381호) 디자인등록증(제 30-0453582호)도 획득했고 국제 특허도 출원중이며,

양축가에 이바지 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상쾌한 생각에는 밝은 미소가 나오고 유쾌한 마음에서 미성이 나오며 경쾌한 행동에서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은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고정 관념을 버려야 만이 사육에서도 승산이 있는 것이다.

2. 환기시 온도 편차를 줄이자

환기는 계사 안의 가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건강한 사육을 하기 위함은 말할 나위 없다. 20여년전만 하더라도 연탄을 사용해서 사육을 했을 때에는 잔병 없이 사육하기 용이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연탄으로 열을 올릴 때는 연통을 통해서 가스는 전부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 가스만 환기시켜 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실수가 없었다.

지금은 대형화된 계사에 직접 열풍기로 온도를 맞추다 보니 열은 잘 잡히지만 열풍기에서 나온 가스를 처리하려다 보니 부적절한 환기 탓으로 질병이 20일 이후에 와서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열은 계사내에서 유지되고, 가스는 밖으로 배출되어 쾌적한 환경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3. 변화의 주역이 되자

변화는 고통스럽고 부담이 된다. 늘 신고 다니던 구두는 발에 편하다. 낡은 구두를 버리고 새 구두를 신으면 길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변화는 아픔을 동반한다.

계절이 바뀌면 제철 옷을 갈아입듯이 열풍기 점검 청소를 반드시 출하 직후에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청소가 수월하면 잔고장이 없기 때문이다.

입추시에는 먼지가 습도와 함께 응고되어 청소가 어렵고 시운전 스타트 시 부하가 걸려 휴즈가 끊어진다.

*온풍기 사용시 주의점

- ① 베어링 부분에 구리스 발라 줄 것
- ② 광정관 먼지 제거
- ③ 정극봉 노즐 부분 먼지 제거
- ④ 배선 누전 점검을 하고 산소 유입 호수 점검
- ⑤ 왕겨를 펴고 바퀴를 고여 높이 확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예방에 신경
- ⑥ 비닐호스는 위험하므로 고무호스를 권장
- ⑦ 기름통에 결로현상으로 생긴 물은 필히 제거

이상과 같은 점검을 하면 열을 많이 요구하는 계절에 필수 조건이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꿈과 희망을 품고 신 바람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양계**